

# IMF, 한국 성장률 2.6% 전망 “美 등 주요 7개국 모두 앞설 것”

## 7월 세계경제전망

지난 4월 대비 0.7%p 상향 조정  
AI 하드웨어 수출 주도국 평가  
세계 경제, 하방요인 상존 우려

국제통화기금(IMF)이 한국의 성장률 예측치를 종전 대비 무려 0.7%포인트(p)나 올렸다. 특히, 올해 우리나라가 미국 등 주요 7개국(G7)에 모두 앞서고 세계 경제 성장률에도 근접할 것으로 전망했다.

IMF는 8일(현지시간) 발표한 ‘7월 세계경제 수정전망’ 보고서에서 올해 한국의 국내총생산(GDP)이 전년대비 2.6%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이는 지난 4월 전망인 1.9%에서 0.7%p 상향한 수치다.

미국 경제에 대해선 기존 2.3% 성장 전망을 유지했다. 일본 예측치는 종전의 0.7% GDP 증가에서 0.6% 증가로 소폭 내려 잡았다. 또 캐나다(1.5→1.1%), 프랑스(0.9→0.6%), 독일(0.8→0.7%)에 대한 전망치도 낮췄다.

전 세계에 대한 전망치는 3.0%로 제시했다. 4월 전망인 3.1%보다 낮아졌다. 중국 GDP는 4.6%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보고서는 한국을 인공지능(AI) 하드웨어 순수출 상위 4개국(한국·대만·태국·말레이시아)이라고 치켜세웠다. 한국 경제에 대해, 중동산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큼에도 불구하고 1분기 성장률이 당초 예상을 크게 뛰어넘었다고 언급했다. 특히 반도체 및 AI 하드웨어 수출 호조에 힘입은 결과라고 평가했다.

세계 경제에 대해선 하방요인의 상존을 우려했다. 보고서는 “세계 경제의 하방요인이 4월보다는 누그러졌지만 하방요인은 아직 (상방요인보다) 우세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중동 정세의 불확실성을 비롯해 무역 분절화, 일부 국가의 정책 여력 약화 등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는 게 IMF의 견해다.

또 AI의 경우, 효율성 향상을 통해 성장에 기여할 수 있으나 기대 반전 시 소비·금융을 위축시키는 하방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IMF는 물가안정 최우선의 통화정책을 전개할 것을 각국에 제언했다. 재정 지원의 경우,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한시적·선별적으로 지원할 것을 권고했다. 아울러 에너지 안보 및 AI 대응역량 강화 등 구조개혁과 무역규범 복원 등을 위한 국제협력의 중요성도 언급했다.

IMF 보고서는 한국의 내년 성장률도 전망치를 올려 잡았다. 4월 2.1% 성장 예측에서 7월 2.5%로 상향 조정했다. 2027년 세계 GDP와 미국 GDP는 각각 3.4%, 2.2% 늘어날 것으로 추산했다.

한편,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이날 발표한 ‘경제동향 7월호’ 보고서에서 “우리 경제는 제조업 생산이 조정됐으나 반도체 수출과 서비스업 호조에 힘입어 완만한 개선 흐름을 유지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KDI는 “수출은 견조한 AI 관련 수요에 힘입어, 반도체 등 정보통신기술(ICT) 품목을 중심으로 높은 증가세를 지속했다”며 “반도체 관련 투자도 양호한 흐름을 이어갔다”고 전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부산 감천항에 입항한 대한전선의 두번째 CLV ‘스칸디 커넥터’호.

/대한전선

## 전선업계, 해저케이블 시공역량 높인다

전용 포설선 확보 등 경쟁력 강화

서해안 초고압직류송전(HVDC) 에너지고속도로 등 대형 해저 전력망 사업을 앞두고 국내 전선업계가 생산 설비 확충에 이어 해상 시공 역량 강화에 힘을 싣고 있다. 해저케이블은 생산 이후 현장 운송과 해상 포설까지 일괄 수행해야 하는 사업 특성이 강해 전용 포설선과 운용 경험이 대형 프로젝트의 일정 관리와 수행 능력을 좌우할 수 있기 때문이다.

8월 업계에 따르면 대한전선은 최근 1만톤급 해저케이블 전용 포설선(CLV) ‘스칸디 커넥터(Skandi Connector)’호를 확보했다. 기존 전용 포설선 ‘팔로스(PALOS)’호에 이은 두 번째 포설선으로, 생산과 해상 시공을 연계한 사업 수행 기반을 넓혔다.

스칸디 커넥터호는 선박위치정밀제어 시스템(DP2), 대용량 듀얼 캐로셀, 텐서너 등을 갖춘 고사양 선박이다. 해상풍력 내·외부망과 장거리 계통연계, HVDC 해저케이블 시공까지 대응할 수 있다. 특히 갯벌이 많고 수심이 얇은 서해안처럼 조류 변화가 큰 해역에서도 비칭(Beaching) 기술을 활용해 선박을 해저면에 고정 한 뒤 포설 작업을 수행할 수 있어 시공 안정성을 높인다는 평가가 나온다.

LS마린솔루션도 차세대 해저케이블 포설선 건조에 들어갔다. 새 포설선은 케이블 적재량 1만3000톤 규모로 2028년 상반기 인도가 목표다. 장거리·대규모 해저케이블 시공에 맞춰 설계됐으며 서해안 HVDC 에너지고속도로 등 대형 전력망 사업 참여를 겨냥하고 있다.

새 포설선이 인도되면 LS마린솔루션은 기존 GL2030과 함께 대형 해저 전력망 사업을 수행하는 포설선 2척 체제를 갖추게 된다. 미국 해저케이블 생산법인 LS그린링크의 2028년 상업 생산 개시

와 맞물리면 현지 생산과 해저 시공을 결합한 턴키 사업 대응력도 높아질 전망이다.

전용 포설선은 해저케이블 사업에서 단순 운반 장비가 아니라 시공 경쟁력의 핵심으로 꼽힌다. 일반 바지선이 케이블 운반이나 보조 작업에 쓰이는 것과 달리 포설선은 케이블을 감아 보관하는 탠데이블과 캐로셀, 장력을 조절하는 텐서너, 선박 위치를 정밀하게 제어하는 시스템 등을 갖춰 해저에 케이블을 직접 설치한다.

대형 포설선 확보가 중요해지는 배경에는 해저케이블 사업의 특성이 있다. 해저케이블은 길고 무거워 한 번에 싣고 이동하는 물량이 많을수록 출항 횟수와 케이블 접촉 작업을 줄인다. 조류와 수심, 해저 지형, 장력 제어까지 함께 고려해야 하는 정밀 시공 작업인 만큼 여러 선박을 투입하는 방식으로 같은 효율을 내기 어렵다는 평가가 나온다.

서해안 HVDC 에너지고속도로 사업도 포설선 확보 경쟁을 키우는 요인이다. 서해안 해역은 수심이 낮고 조류 변화가 커 시공 난도가 높은 지역으로 꼽힌다. 업계에서는 1만톤 이상급 포설선과 정밀 시공 장비, 운용 경험을 갖춘 업체가 사업 일정 관리와 현장 대응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해저케이블 포설은 일반 선박을 여러 척 투입한다고 해결되는 작업이 아니라 케이블을 싣고 해저에 직접 설치할 수 있는 전문 선박과 정밀 시공 역량이 필요하다”며 “서해안 HVDC 에너지고속도로처럼 대규모 사업이 본격화되면 1만톤 이상급 포설선과 운용 경험이 프로젝트 일정과 시공 리스크 관리에서 중요한 평가 요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원관희 기자 wkh@metro



## 5월 경상수지 386.1억달러 흑자... 역대 최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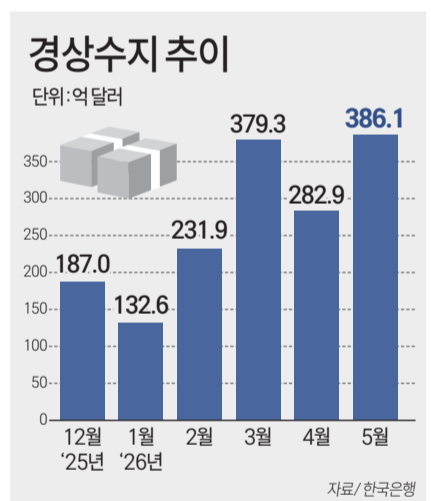
반도체 등 정보기술 품목 수출 호조  
상품수지 378.6억달러... 역대 1위

반도체 등 정보기술(IT) 품목 수출 호조에 힘입어 지난 5월 경상수지가 역대 최대 흑자를 기록했다. 상품수지도 사상 최대 흑자를 냈고, 여행수지는 입국자 증가 영향으로 흑자로 돌아섰다.

8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6년 5월 국제수지’에 따르면 5월 경상수지는 386억1000만달러 흑자로 집계됐다. 전월 282억9000만달러보다 흑자폭이 103억2000만달러 확대됐다. 이는 종전 최대치였던 지난 3월 379억3000만달러를 넘어선 역대 최대 규모다.

경상수지 흑자를 이끈 것은 상품수지였다. 5월 상품수지는 378억6000만달러 흑자로 전월 338억8000만달러보다 확대됐다. 상품수지 역시 종전 최대치인 지난 3월 356억8000만달러를 웃돌며 역대 1위를 기록했다.

수출 증가세가 수입 증가세를 크게 웃돌았다. 5월 상품수출은 943억4000만



달러로 전년 동월보다 62.9% 증가했다. 상품수입은 564억8000만달러로 같은 기간 22.2% 늘었다.

수출은 IT 품목과 비IT 품목이 모두 증가했다. 통관 기준으로 보면 IT 품목 수출은 전년 동월보다 128.9% 급증했다. 컴퓨터 주변기기와 SSD가 249.4%, 반도체가 167.7% 늘었다. 비IT 품목도 석유제품과 화공품, 철강제품 등을 중심으로 10.0% 증가했다.

수입은 원자재와 자본재를 중심으로

늘었다. 원자재 수입은 석유제품, 석탄, 화공품, 원유 등을 중심으로 전년 동월보다 22.1% 증가했다. 자본재 수입도 반도체와 반도체 제조장비 등을 중심으로 28.0% 늘었다.

서비스수지는 10억9000만달러 적자로 집계됐다. 적자 흐름은 이어졌지만 전월 24억2000만달러 적자보다 폭이 줄었다. 여행수지는 5000만달러 흑자로 전환했다. 입국자 수가 전년 동월보다 19.4% 늘어난 영향이다. 지식재산권사용료수지도 7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본원소득수지는 21억7000만달러 흑자로 돌아섰다. 배당소득수지가 11억5000만달러 흑자를 낸 영향이다. 한은은 전월의 계절적 배당지급 요인이 해소되면서 배당소득수지가 흑자로 전환했다고 설명했다.

올해 1~5월 누적 경상수지는 1412억8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같은 기간 상품수지는 1459억6000만달러 흑자였다. /김주형 기자 gh471@metro



## “생산 차질·공급망 영향시 글로벌 브랜드 인지도 타격”

>> 1면 ‘임단협 난항 완성차...’서 계속

한국GM 노조는 9일 진행되는 13차 교섭의 상황을 지켜보며 투쟁의 방향을 결정할 것으로 전하고 있다.

르노코리아 노조는 이날 오전 사측과 올해 임금협상 교섭 결렬을 선언했다. 르노코리아 노조는 “사측 제시안이 무성의를 넘어 노동자들을 기만했다”며 “교섭 결렬 선언 후 확대 간부 전원 민정일치로 쟁

의를 결의했다”고 밝혔다. 르노코리아 노조는 이르면 이번주 전체 조합원을 상대로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진행할 예정이다. 르노코리아 노사는 지난 4월 임단협 상견례를 시작으로 지난 7일까지 12차 교섭을 진행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이번 추가 완성차 업계 임단협의 1차 교섭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최근 성과급 요구가 영

업이익이나 순이익과 직접 연동되는 방향으로 가면서 기업들의 부담이 확대되고 있다”며 “SDV와 자율주행 등 미래 모빌리티 기술 경쟁에 대한 대규모 투자를 위한 자본을 확보하지 못하면 경쟁 업체에 뒤처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노사 간 접점을 찾지 못해 생산 차질과 공급망 영향으로 이어질 경우 글로벌 시장에서의 브랜드 인지도는 악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양성운 기자 ysw@metro

## UBS “디스카운트 거래 가능성 매우 낮아”

>> 1면 ‘SK하이닉스 ARD...’서 계속

ARD이 보유·운용 측면에서 더 효율적이고 저렴해 헤지펀드 등에 한국 주식보다 매력적일 수 있고, 한국 상장주를 투자 유니버스에 두지 않는 글로벌 포트폴리오 매니저들도 매수할 수 있게 될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UBS는 노트에서 “첫날부터 예탁증서를 매수하고 국내(한국) 라인을 공매도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선택”이라며 “디스크에 노출되는 달러 규모가 매우 제한적인 만큼 확장성이 뛰어나 디스카운트로 거래될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밝혔다.

한국 상장주 보유 비중이 낮은 글로벌 개인투자자들의 수요도 새롭게 유입될 요인으로 꼽힌다.

UBS는 “미국 증권사들이 해외 개인투

자에게 한국 주식 접근권을 제공하는 소식은 일부 있었지만, 이는 최근 일”이라며 “SK하이닉스에 대한 글로벌 개인투자자 보유 비중은 여전히 낮아 ARD이 접근성을 개선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블룸버그는 투자자들의 관심이 한국 주식과 ARD 간 상호 전환 가능 여부에 쏠려있다고 전했다. 완전한 상호교환이 불가능한 미국 상장 ARD는 본국 상장주보다 프리미엄에 거래되는 경우가 많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제출 서류에 따르면 ARD 보유자는 이를 취소하고 이에 상응하는 한국 상장주를 받을 수 있지만, 나중에 보통주를 ARD로 전환하려면 한국 당국의 승인 등이 필요할 수 있어 제약이 있을 수 있다.

/허정윤 기자 zelkova@metro